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등장인물: 황만근 마을사람1 마을사람2

민씨 마을이장 생선장수

황만근의아들 황만근엄마

#씬번호

줄거리

인물: 대사

\*=효과음, ()=인물행동, []=무대효과

#1

황만근이 죽고 아들이 슬퍼하며 경운기가 망가진채로 돌아온 모습

장소 : 마을

\*웅성이는소리

마을사람1: 아이고 만그이 자석이 있었으마 거름이 우리 밭으로 올낀데.. 이제 그라지도 못하깃네

마을사람2: 쯧쯔 만그이 거이 어쩌다..이제 동네일은 우짜쓰까..

황만근의 아들: 넋이 나간표정

민씨: 괜찮니.. 유감이다 좋은분이셨는데..

황만근의 아들: 아부지.. 사람취급도 못받고 기속 만그이~만그이~하다가 고래 가버리시면

우짭니까..

민씨: 너무 심려치 말아라..좋은곳을 가셨을꺼야

황만근의 아들: 아저씨 지는 이제 우짜면 좋슴네까..그임마 업시면 공부도 안뱁니다

민씨: 내가 이장님에게 말해보아 그동안 우리집에서 지내는것이 어떠하냐?

[무대조명꺼짐]

#2

황만근이 토끼귀신과 싸워 소원을 이루는 장면

[무대 어두움, 연기(가능하면), 으스스한 소리]

장소: 토끼고개

엄청 큰 토끼: 너는 집에 못 간다. 너는 집에 못 간다. 너는 집에 못 간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토끼가 입을 벌린다 [이가 반짝거림])

황만근: 그기 뭔 소리라? 내가 내 집에 내 발로 가는데 니가 뭐라꼬 집에 못 간다 카나.

귀신이마 썩 물러가고 토끼마 착 엎디리라. 내가 너를 타고서라고 집에 갈란다.

엄청 큰 토끼: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집에 못간다.

(토끼가 황만근에게 다가간다)

황만근: (소름끼치는 몸짓)비키라!!

(토끼를 손으로 밀친다)

(손이 토끼의 몸속으로 들어가 안빠진다)

(조금 있다가 동이 튼다)

엄청 큰 토끼: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으니 나를 놓아라

황만근: 택도 없는 소리 말거라. 니를 탕으로 끓이서 어무이하고 나하고 마주앉아서

먹어치울 끼다. 니 가죽을 빗기서 어무이 목도리를 하고 내 토시를 하고

장갑을 할 끼다. 니는 인자 죽었다, 자슥아

엄청 큰 토끼: 그럼 어떻게 하면 네 팔을 빼겠느냐.

황만근: (어이없는 표정) 내 소원을 세 가지 들어주기 전에는 니까잇 거는 못 간다

엄청 큰 토끼: 네 소원이 뭐냐.

황만근: 우리 어무이가 팥죽 할마이겉이 오래오래 사는 거다.

엄청 큰 토끼: (동이 트는 것을 보고 초조해 한다) 지금 들어주었다. 그 다음은?

황만근: 여우 겉은 마누라가 생기는 거다.

엄청 큰 토끼: 송편을 세 번 먹으면 네 집으로 올 거다. 다음은 무엇이냐?

황만근: 떡두깨(떡두꺼비) 겉은 아들이다.

엄청 큰 토끼: 마누라가 들어오면 용왕이 와서 그렇게 해준다. 이제 나를 놓아라.

황만근: 내가 언제 니를 잡았나. 니가 가뿌리만 되지, 바보자슥아.

엄청 큰 토끼: 화를 내고 가버린다

#3

처녀가 강에 들어가려는데 황만근이 구해주는장면

장소: 강>집>방

\*물소리, 경운기소리

(처녀가 물로 뛰어든다)

황만근: 짬깜!!!!짬깜~!!!!!!!

황만근: (물에서 쳐녀를 건져내고 중얼댄다)빨개동이맨쭈로물에서모욕하마우엄허고미기잡아여

처녀: 멀뚱멀뚱

황만근: 애리럼 저수지에섬마 멱 감면 디비죽고 옷도 버린다 카이

(황만근은 경운기에 처녀를 태우고 집으로간다)

황만근: 어무이!!어무이!!

황만근 엄마: 아이고 와그리 불러쌌노 마을사람 다알긋네 무슨일인기 뒤에 그 마는 누궁겨?

황만근: 집으롬마 오늘길에 뛰에길래 구해짓다 조금 쉬어야쓴다

황만근 엄마: 일단 방으로 날리라

(처녀를 방으로 옮긴다)

[둘이 방밖으로 나오며 무대를바꿈]

#4

처녀를 옮기고 단둘이 얘기하는 모습

장소:방 밖에>방

(속삭이듯)

황만근 엄마: 우쨔 저리됫다고?

황만근: 몰려 오는길에 캄마 뛰에내릿다

황만근 엄마: 뭔 사연이 있을낀데.. 마 누꼬?

황만근: 모른다

황만근 엄마: 하고 고럼 빨리 깨어나야 쓰것네

황만근: 일단 늦었으니 내 보께 어무이 먼저 주무키라

황만근 엄마: 알뭇다

(황만근 방으로 들어가고 엄마 무대에서 빠짐)

#5

처녀가 아들을 두고 사라짐

\*아기 울음소리

황만근 엄마: 문디자슥아 아침부터 뉘집새끼가 이리 울어대나 잠을 잘수가 없네

황만근: (잠에서 깨며 아기와 쪽지하나를 발견한다)

\*쪽지 내용 나레이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웃군 에서 왔습니다

감사의 뜻으로 경운기와 바라시던 아들을 남기고갑니다

황만근: 어무이!! 새끼다!!진짜 떡디끼비같은 아들!

(황만근 엄마가 뛰쳐오며)

황만근 엄마: 새끼라니 먼시리고 근디 처녀는 어디갔나?

황만근: 그시.. 종이쪼가리 하나만있고 없시지 비맀다

황만근 엄마: 참 이상한처녀네..

[조명꺼짐]

#6

아들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놀림

장소:마을

\*비웃는소리(아주약간)

(황만근이 아들을 없고 동네사람이 뒤따라가며 무대를 가로지른다)

마을사람1: 만근아 만근아 네 등에 지고 가는 게 뭐라?

황만근: 아들이다

마을사람1: 누구아들이라?

황만근: 내 아들이다

마을사람2: 토끼가 줬나?

황만근: 아이다 내 해다

마을사람2;및근이라?

황만근:여끈.

[조명꺼짐]

#7

아들이고등학생이되어 아빠와 대화하는부분

장소: 마을

\*코고는소리

황만근 아들: 아부지야, 인마, 퍼뜩 일나라.

황만근: 쪼매만 더 앉아 있지. 내 니 엄마를 꿈에서 보다 말았다 안카나.

황만근 아들: 너는 우째 맨날 술로 처먹고 내 속을 썩이나. 너 때문에 내가 학교 공부도 못하겠고 인생도 싫다.

황만근: 아이고, 우리 아들, 아들님, 내 잘못했다. 한분만 봐조라.

황만근 아들: 니가 자꾸 이렇게 비겁하게 나오기 때문에 동네 아들도 너를 무시하는 거 아이가.

제발 체면 좀 지키라. 시염만 어른이가. 내가 챙피해 죽겠다.

황만근: 체면이 뭐가 문제라. 사람이 지 손으로 일하고 지 손으로 농사지어서 지 입에 밥 들어가

마 그마이지. 남 쳐다볼 기 뭐 있노. 하이고. 그란데 와 자꾸 눈이 깜기까."

황만근 아들: 니 자꾸 이카마 할매한테 일라준다. 할매 부르까, 엉?"

황만근: (머리를찧으며)하이고, 제가 고마 크게 잘못했십니다. 아들님요, 일나께요.

제발 어무이만 부르지 마소.

황만근 아들: 그라믄 빨리 밥좀해줘라 내는 아부지밥아니면 고마 맛도 없디라

배고파 죽것다 집가서 빨리 아침묵자

황만근: 아고 우리 아들님 또 아침 금방 해주께요

(아들이 황만근을 부축하며 나간 후 방송소리)

\*이장: 아아 오늘저녁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농민 총궐기대회공지가 있습ㄴ... l.. ..

\*스피커 잡음소리

[소리가 작아지며 조명꺼짐]

#8

마을이장이 황만근에게 경운기를 끌고 나오라고 하는부분

장소:마을회관 밖

\*바람부는소리

(마을회관에서 나오며)

마을이장: 내 이러키까지 말을 해도 소양이 없어. 보나마나 내일, 융자받아서 다방이나 댕기민서

학수겉이 겉농사 짓는 놈들이나 및 올까. 만그이 자네겉이 똑부러지기

농사를 짓는 사람은 하나도 안 올 끼라. 자네가 앞장을 서야 되네. 자네 깅운기 겉은

헌 깅운기에다 농사짓는 놈 다 직이라고 써붙이 달고 가야 된께……"

황만근: (약간취한모습)헤헤..

마을이장: 많이 취헛구만 어여들어가 쉬라 낼 일찍부터 바쁠텐께

(마을이장 나감)

황만근: (표정을 바꾸며)쓰읍 하.. 구장 점마 꼭 필요할때만 빌어싸...

부채도 없는사람 보고 궐기에 나오라카는구만 어이가 없어서..

(뒤에서 보던 민씨 놀람)

(놀람을 감추고 민씨가 뒤에서 나온다)

민씨: 여기서 뭐하십니까?

황만근: 아이고 민씨요 내는 빌들 보고있지 지 빌들 참 똘똘하기 잘도 돈다.

민씨: 뭐가 말씀입니까.

황만근: 시계맨쭈로 하루도 쉬지 않고 똑딱똑딱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지 않는기요.

민씨: 아.. 군청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경운기로 가면 말입니다.

황만근: 한나절은 걸릴 끼라.

민씨: 경운기 운전을 잘하신다면서요.

황만근: 동네에서는 내가 젤 오래 했응께. 깅운기도 마이 늙었어. 고집이 시가이고

나 아이만 발동도 안 걸리. 내가 제 똥창까지 환하게 안께 말을 듣는 기라.

민씨: ……내일 궐기대회에 가십니까.

황만근: 내사 뭐 어머이 밥도 끓이디리야 되고…… 모르겠소.

구장은 나 겉은 상농사꾼이 꼭 가야 된다 카는데.

민씨: 어머니 연세가 얼마나 되시죠?

황만근: 올개가 환갑인데.

민씨: (미소를지으며)혹시 술이 모자라시면 제 집으로 가실랍니까.

집에 먹다 남은 소주가 있는데요. 안주는 없고.

황만근: 안주가 없음 내 한다! 걱정마이라

민씨: (웃으며)괜찮습니다 제가 입맛이 까다로워서 아무거나 안먹어요..

황만근: 아고 우리 아들내미랑 똑닮아쓰것네 울 아들도 입맛이 까다로워서

내아님 밥을 안먹는다칸다 내만 믿으면된다

[무대를나가며 조명꺼짐]

#9

황만근과 민씨가 이야기하는부분

장소: 민씨의 집

\*술잔에 술따르는소리

황만근: 크으..농사꾼은 빚을 지마 안된다 카이.

민씨: (안주를 먹어보고 놀란모습)

황만근: 제 돈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노름이나 다를 바 없다.

빚은 처마의 고드름처럼 자꾸 커진다.

민씨: 모두들 그래서 빛이 많죠..

황만근: 기계화영농 카더이마 집집마다 바퀴 달린 기계가 및이나 되나.

깅운기, 이앙기, 건조기에…… 다 빚으로 산 기라. 농사지봐야 그 빚 갚느라고 정신없다."

민씨: 근데 황선생님은 왜 빛을 안지셨습니까?

황만근: 내가 왜 빚을 안 졌니야고. 아무도 나한테 빚 준다고 안캐.

나는 내 짓고 싶은 대로 농사지민서 안 망하고 백년을 살 끼라.

민씨: 아드님도 농사를 지을까요??

황만근: 갸는 나를 안빼닮미서 안할기라 똘똘하고 엄마를 쏙 닮았으니 기계상이라 될까하지

민씨: 아..근데 여러소문이 돌던데요 아내분은 어떻게됬는지 말입니다.

황만근: 그거시... 참 딱한거신데 아침에 보니 없어지비따. 그랴도 쪽지가 우리 아들이랑

같이 있게 보니 이웃군 사람이라카더라

민씨:이웃군이요..?

황만근: 이 기리고보니 민씨도 이웃군에서 오지않았나?

민씨: 아..예 그랬죠..

황만근: 어쩐지 꼭 민씨같디라. 혹시 둘이 아는사ㅇ......

민씨: 저기.. 밤이 많이 늦었습니다 내일 일도 있으니 오늘은 이만 하시는것이 어떻습니까?

황만근: 아..기까(그럴까)..

민씨: 예 요 앞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방에서나감)

[조명꺼짐]

#10

궐기대회에 나감

장소 황만근의 집

\*시동걸리는 소리

황만근: (힘을주며)이기.. 이젠 늙어서 발동도 안걸네... 흣!!..흣!!

\*엔진 공회전소리

황만근: 후..새걸로 바꾸던지 해야지 구장은 뭣하더 나까지 부른다...

(경운기를 타고출발, 선선)

황만근: 날씨가 선선 한걸보니 벌써 가을인가보이..

(조금더 가다 비가온다)

황만근: 하이고오 날씨도 추운낀데 비까지오까...분명 요 근처일낀데 사람도 없노..

(지나가던 다른마을 사람을 보고)

황만근: 져 뭣좀 묻것소 여기 궐기대회열리는게 아닙니까?

생선장수: 그게 끝났습지라.. 아까까지 문디게 소란스러웠응꼐

깅운기도 없는데 어찌나 시끄럽던지..

황만근: 아..감사합니다(다른마을사람이 간 후)허고 일찍온답시고 왔는데..

날씨도 추운데 우리 어무이는 잘 계실련가..

생선장수: 저 먼곳어서 온것같은디 그라믄 아까침예 잡은 도다리가 한창이라 깡깡한데

하나 하실려요?

황만근: 갠천소 우리 어무이는 고등어를 좋아한께 두손만 주시구려

생선장수: 고등어도 솔찮히 좋지라 눈썰미가 기시네 여깃소

(황만근은 경운기의 머리를 돌려 다시 돌아간다)

황만근: 으슬으슬 마이 춥네...

(멀리서 민씨가 보인다)

황만근: (반가워하며)어어!!민씨..

민씨: 황선생님! 이제야 돌아오십니까? 꼴은또 왜그러십니까?

황만근: 기게 마이 늦었지 믠가 비도오고 하더네 헤헤 여긴 어찐일이오?

민씨: 동네사람들이 황씨 안온다고 걱정되서 나와있었습니다.

황만근: 마을시름들이 그리 나를 조들어하는줄 볼랐네..

민씨: 하여튼 수고많으셨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잠깐 여 근처에서 쉬다가시지요

(둘이퇴장)

[조명꺼짐]

#11

민씨가 황만근을 죽임

장소 근처따뜻한곳

\*빗소리

민씨: 일단 옷부터 갈아입으시죠 혹시몰라 여벌옷을 챙겨왔습니다

황만근: 고맙구마 날씨가 쌀쌀하니 아찔했어..

민씨: 저 저번에 하셨던 얘기 있죠..

황만근: 우리 아내말인고?

민씨: 예... 사실 제가 하나 전해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황만근: 전해들은 얘기라 카믄..

민씨: 한잔 하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차마 제정신에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황만근: 이날씨에 어딜가서 술을 머꼬 그냥 말해라 나는 개안타

민씨: 아! 제가 술을 가져왔습니다. 한잔하시죠

황만근: 크으.. 이기 참 오랫만의 술이라 긍가 전보다 더 대끼리네.. 그랴서 할말이 무엇인고?

민씨: 갑자기 이런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사실 그녀는 제 아내입니다

(잠시 정적)

황만근: 잉? 아무리 농이라지만 이런농은 좀 심허지 그러고 보니 오늘따라 아내가 보고싶구만..

꼭 이런날씨만 되면 그 처녀가 생각나지 뭔가... 한번만 더 볼 수 있다면 내 우리 아들을

보여주고 싶다네..

민씨: (진지한눈빛)

황만근: 하고 와 그리 보나 설마 참말인가 내 민씨말이 참말인가

민씨: 예..

황만근: 이게 무슨말이여 근데 왜 자꼬 눈이 깜기까... 내 많이 피곤하가..

민씨: (사악한 표정)잠이 오는 게 아니고, 마비가 오는겁니다. 황선생은 곧, 손발에 힘이 없어져서

잠에 빠져들겁니다. 그러게 왜 그러셨어요. 저는 황선생님 오래 보고 싶었는데...

그 전에 하나만 묻고싶습니다 왜 바보인척 살았던겁니까?

황만근: 바보인척 살다니..? 그리고 마지막이라 카는건 또 먼 소리노..

민씨: 그날 마을회관에서 보았습니다 황선생님의 다른모습을요 그런데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바보인척 하는거죠? 온갖 궃은일을 하면서도?

황만근: 아..좀더 조심했어야 됬었는데.. 들어보게 나는 동네의 온갖 궃은 일을 도맡아 하며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부채에 시달리며 궐기대회까지 열어가며

살기 위해 애쓰네 비록 나처럼 바보를 이기적으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과연 이럼에도

바보로 사는 나의 삶보다 빛을 갚기 위해 농사를 짓는 삻이 더 낫다고 할 수 있겠나.

그런데 민씨 나에게 왜 계속 그렇게 구는건가...

민씨: 바보로 사는게 더 나은 삶이 되었다.. 어이없지만 뭐라 할 수도 없군요..

마냥 생각없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생각없이 보수없이도 일하시는줄 알았더니

그래도 생각이 없는분은 아니셔서 다행이네요.. 아그리고

사실 방금 드신 술은.... 황선생님을 위한 제 작은 선물입니다

황만근: (잠에들듯이 고꾸러진다)

[조명 다 끄고 민씨 스포트라이트](사악하게)

민씨: 제 아내는..아니 황선생님의 아내는 비록 저를 버리고 떠나가 이제는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저는 아직도 그녀가 그립습니다.. 그녀가 돌아올 수 만 있다면 저는 무었이든지

할 껍니다. 남을 아들은 걱정 마십시오 곧 곁으로 보내드겠습니다

(황만근을 경운기에 태워 길옆의 논으로 보낸다)

\*사고나는소리

[조명꺼짐]

#12

황만근이 죽고 아들이 슬퍼하며 경운기가 망가진채로 돌아온 모습

장소 : 마을

\*웅성이는소리

마을사람1: 아이고 만그이 자석이 있었으마 거름이 우리 밭으로 올낀데.. 이제 그라지도 못하깃네

마을사람2: 쯧쯔 만그이 거이 어쩌다..이제 동네일은 우짜쓰까..

황만근의 아들: 넋이 나간표정

민씨: 괜찮니.. 유감이다 좋은분이셨는데..

황만근의 아들: 아부지..사람취급도 못받고 기속 만그이~만그이~하다가 고래 가버리시면

우짭니까..

민씨: 너무 심려치 말아라..좋은곳을 가셨을꺼야

황만근의 아들: 아저씨 지는 이제 우짜면 좋슴네까..그임마 업시면 공부도 안뱁니다

민씨: 내가 이장님에게 말해보아 그동안 우리집에서 지내는것이 어떠하냐?

[무대조명꺼짐]

-END